

탄탄한 정책으로 힘찬 약동 이어간다

지난해 민선 8기 청사진을 꼼꼼하게 그려낸 장수군은 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및 로컬브랜딩 활성화로 국무총리상 수상에 이어 농어촌 삶의 질 지수 평가 전국 최상위권, 지방소멸기금 S등급 144억, 농촌협약 384억, 장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330억원을 확보하고, 산업부 장계면권 LPG 배관망 구축사업 공모 등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그뿐 아니라 장계면 도시재생사업으로 138억, 계남면 유천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지정으로 280억원을 확보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그간 전복의 변방으로 여겨졌던 장수는 지난 한해 크고 작은 성과들로 인해 장수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장수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중앙부처나 인근 지자체가 장수군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올해에도 탄탄한 백년대계(百年大計) 정책으로 힘찬 약동을 이어가겠다는 '작지만 강한' 장수군, 2025년 장수군정 운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래의 '기회의 땅'에서 동부권 스마트 농업의 중심지로

장수군은 지난해 고령지라는 기후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 기후위기 시대에 '기회의 땅'으로 가능성을 엿보며 동부권 스마트 농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동부권 스마트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680억원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있다.

특히 1단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과 임대형 수직농장 조성사업은 막바지 단계에 돌입해 오는 5월 청년 농업인들의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어지는 2단계 청년농업인 유치 임대형 스마트팜도 올해 완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임대형 농장 사업의 핵심은 청년 농업인의 창업 초기 부담 완화다. 입주자들은 첨단 시설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술을 습득해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을 이어갈 수 있다.

또 최근 2025년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장수군 사과단지가 선정되며 군의 지속 가능한 과수산업 실현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 기계화·무인화에 최적화된 미래형 스마트 과수원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37억원을 투입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노동력은 30% 절감하고, 상품성은 30% 증가되는 노지 스마트 과원으로 생산성이 대폭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청정고장, 깨끗한 장수 대한민국 생태관광 1번지

장수군은 아이들이 뛰어놀기 걱정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증가하는 관광객에게는 자연이 선사하는 자유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청정고장, 깨끗한 장수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금강첫물 뜬봉샘과 수분마을'이 국가생태관광지로 최종 지정되며 청정고장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뜬봉샘 생태공원은 예쁜 자작나무숲, 수국정원이 조성돼 있어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할 뿐 아니라, 자연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힐링 명소로 손꼽힌다. 또한 하늘다랑쥐, 수달, 새풀부구뚝 등 희귀 동식물이 자생하고, 1급수 지표종인 옆새우와 개개가 서식하는 생태관광 1번지이다.

이번 국가생태관광지 지정으로 2025년부터 장수군은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생태관광 기반시설 관리, 지역협의체 구성 및 주민 교육, 홍보활동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장수군은 환경 보호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해 군의 재활용률이 크게 늘어 지난해 대비 50% 증가했다. 폐기물 발생량이 5%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41% 증가한 결과다. 이는 마을별 방치 쓰레기 일제정리, 읍·면 시가지 청소 시스템 구축, 슬레이트 철거사업 조속 추진 등 군이 펼친 다각적인 정책의 성과이다.

▲다채로운 축제에 가득한 장수

장수군은 사시사철 다채로운 축제로 지역브랜드 가치를 지역활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군 대표 축제인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작년에 RED FOOD FESTIVAL이라는 새로운 명칭과 콘셉트를 도입해 다양한 변화를 했고 올해에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간다.

문화관광부 예비축제에서 현행축제로 진입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먹거리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차별화된 지역축제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이외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여름 휴양지인 방



스마트팜

동부권 스마트팜 조성
농업의 패러다임 전환
청정고장, 깨끗한
장수 만들기
전력 레드푸드 등 축제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 높여
아동·청소년 친화적
복지 환경 조성

화동 계곡에서 펼쳐지는 한여름의 무더위를 날려줄 '물발리 페스티벌', 각 지역의 특색이 담긴 읍·면축제, 크고 작은 문화축제가 우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100만 관광객 시대 및 국제산악관광도시 비전

'장수군 1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군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도시의 산들이 발전을 이유로 훼손될 때 장수의 '산'은 발전에서 한발 비켜난 덕분에 역설적으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6월 100억원 규모의 국토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공모에 선정돼 블랙야크와 손을 맞잡았고, 그간 공모 등을 통해 확보된 △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196억원 △ 백두대간 육십령 지방산림정원 60억원 △ 지덕령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지역에 선정되며 국제산악관광도시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여기에 '아이들의 천국'로 불리는 장수누리파크는 신식 시설의 발달놀이장, 키즈카페의 인기에 힘입어 전년 대비 관광객 수가 170% 이상 증가했다. 가파른 관광객 유입을 견인해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기도 했다.



최훈식 군수의 포부 백년대계를 그릴 수 있는 정책 펼칠 것

"다시 오고 싶은 장수 선보여 100만 관광객 시대 이끌겠다"

"2025년 장수군은 '개신창래(開新創來)'의 자세로 새로운 길을 열고 미래를 창조하며 장수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성과보다 장수군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그릴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모두가 어우러지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다시 오고 싶은 장수'를 선보여 장수군 100만 관광객 시대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첨따라 유행하는 새로운 아이템만 따라가다 보면 고유한 잠재력과 특색을 잃을 수

있다고 강조한 최 군수는 "장수군은 새로운 것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수가 가진 것, 그동안 해오던 것을 잘 보전하고 이끌어 가면 미래에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들과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장수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뜬봉샘



레드푸드 페스티벌



물발리 페스티벌



개방형 체육시설 투자협약



청소년 꿈 키움 비우쳐 카드

올해 상반기까지 민자 100%로 약 30억원이 투입돼 전지훈련, 재활훈련, 군민체육활동을 위한 체육시설이 조성될 전망이다.

다목적 체육시설이 조성되면 전국 규모의 축구대회를 장수군에 유치하고, 연간 최대 3,000여 명의 선수가 군에 머무르는 전지훈련이 시행될 예정이다. 리턴 측은 아시아 유소년 친선 교류대회 등 다양한 생활인구 유입방안을 계획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한 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상생사업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대간 치밀없는 행복복지 실현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됐던 아동, 청소년, 청년을 위한 정책도 꼼꼼히 살펴 미래인재 양성과 청년 정주여건 개선에 힘쓴다. 지역소멸이 아닌, 장수의 먼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을 위해 풀뿌리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청소년 꿈키움 비우쳐 카드를 지원하는 등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또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한 장수청년레벨업, 창업지원사업, 네트워크 활성화 등 단계적 청년 지원을 통해 장수군을 더 이상 떠나는 곳이 아닌 오래 머무르는 지역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장수=고광호 기자

제공할 계획이다.

▲생활체육 환경 조성

누구나 함께하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여가 생활 증진을 위해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장수종합실내체육관과 계남실내체육관 건립으로 시계절 내내 편리하고 안전한 운동 공간을 제공하며, 오랜 숙원사업이던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주민의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군은 최근 민간 기업(주)리턴과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